



특집: 문학적 상상력의 현단계

기획: 한류 문화의 실체를 따진다

『스름-문학의 이름으로』 제10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2020년 3월 30일 / 140*240 / 456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한류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적인 흥분을 걷어내고, 그 실체를 심층적으로 분석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쑈-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10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획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이른바 ‘한류’ 현상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대중음악, 영화, 문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묶은 <작은 기획> 쪽지이다. 무엇보다 한류 현상의 표층에 부유하는 저널리즘적인 흥분을 거둬내고 그 심층적 실체를 따져보고자 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음악평론가 이정엽 씨가 현재의 ‘K-pop’이 “지구적 문화 흐름 속에서 태동하고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며 성장했으며 또한 그런 과정을 촉진하는 트랜스 문화”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용어 정의와 현장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 놓인 ‘K-pop’의 위상을 추적해 보여준다.

영화평론가 유운성 씨는 「이식과 기생」에서 봉준호의 <기생충>(2019)으로부터 임화와 나운규에게로 시간을 거슬러 추적하며 한국 영화사를 역산한다. 그 결과 <기생충>은 하나의 돌출한 작품이기 전에 오랜 이식의 노력을 거쳐 장기 생성된 형식과 모순적 비형식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추론을 제출한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장 힘겨운 문학 분야에 대해, 문학평론가이자 연세대 교수인 정과리 씨는 한국문학의 역사와 특수한 위상을 관찰한 후, 문학이 영화나 ‘K-pop’이 처한 것과는 다른 현실 위에 있으며, 세계문학의 “열린 분면” 안에서 이질적이면서 상관적인 방식으로 관계할 때에 비로소 미래 전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우리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은 어떻게 특화되는가?

이번 호 특집은 ‘문학적 상상력의 현단계’로 꾸며졌다.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포괄하는 영역은 넓다. 인식론적 차원으로부터 심미적 창조와 가치 판단에 이르기까지, 혹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문제들을 아우르는 데 이르기까지, 상상력이 관여하는 범주는 넓고 다채롭다. 이번 호에선, 그 나름의 역사를 갖는 상상력에 대한 이해는 현재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은 어떻게 특화되는가? 하는 두 가지 층위의 질문에 대한 답신들을 박치완 외국어대학교 교수,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김대산 문학평론가, 복도훈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노대원 제주대학교 교수, 양순모 문학평론가 등의 흥미로운 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집 주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특집과 함께> 란에서는 “나는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김소형 시인, 양선형 소설가, 황인찬 시인, 황현진 소설가의 감각적인 문장이 선보인다.

시와 소설은 물론 특별한 텍스트 실험의 향연 등

김복희, 김지연, 이제니 시인의 신작 시와 백가흠, 우다영, 전태호, 허희정 소설가의 신작 단편, 그리고 이장욱 작가가 선보인 ‘텍스트 실험 공간’은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그때 그 실험’에서는, 서정인의 장편소설 『달궁』을 다룬다. 정홍수 문학평론가는 말과 글의 섞임, 청자와 화자의 자리의 뒤섞임, 처음과 끝의 확정 불가능성 등을 통해 “진릿값의 경계”를 되묻는 것이 『달궁』의 특유의 성취임을 세세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언어’에서는, 오늘날의 대중문학 지향적 풍토에 반하여 끈질긴 언어 탐구를 지속하고 있는 두 소설가의 최근작, 한유주의 소설집 『연대기』와 윤해서의 장편소설 『0인칭의 자리』를 대상으로, 조효원 문학평론가가 두 작가의 문학적 실험을 역설적인 비애극의 차원에서 흥미롭게 조망한다.

‘시시비비’ 코너에는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무엇을 위한 역사인가?—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전망」이 실렸다. “역사학이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과학으로부터 역사적 전망을 하는 이야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필자의 시의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차례

특집 : 문학적 상상력의 현단계

'행복의 진보'를 위한 상상력_상상력의 현재적 문제 | 박치완
상상력, 창조와 구성의 역설적 공존_문예비평적 관점에서 | 송태현
나무를 찾아서_상상력 논의의 몇 가지 국면 | 김대산
SF, 복원과 상속의 상상력_마지 피어시의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에 대하여 | 복도훈
바다 건너의 역사, 그녀들의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_하와이 초기 이민사 소설의 역사적 상상력 | 노대원
한국 시의 새로운 상상력_젊은 시인들을 중심으로 | 양순모

특집에 덧붙여_현장의 목소리 : 나는 상상한다

판데믹pandemic | 김소형
No-knowing | 양선형
상상적 불온함 | 황인찬
상상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하며 | 황현진

작은 기획 : 한류 문화의 실체를 따진다

트랜스문화와 K-pop_경계를 넘나드는 K-pop을 둘러싼 욕망들 | 이정엽
이식과 기생_봉준호의 <기생충>(2019)을 계기로 다시 읽는 임화의 영화론 | 유운성
"삶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학아! 서울은 왜 이리 흥겨운지 그만 내다봐라 | 정과리

시와 소설

사랑하는 신 외 2편 | 김복희
평범한 대낮의 밝음 외 2편 | 김지연
같았다 | 백가흠
메조와 근사 | 우다영
물을 바라봄 외 2편 | 이제니
악몽 낭독회 | 전태호
망가진 겨울 여행 | 허희정

텍스트 실험 공간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 | 이장욱

그때 그 실험

삶, 말, 글의 섞임 그리고 전체를 향하여_서정인 장편소설 『달궁』 | 정홍수

지금 이 언어

무한과 문법 사이에서_한유주의 연대기 와 윤희서의 0인칭의 자리 | 조효원

시시비비

무엇을 위한 역사인가?_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전망 | 김기봉

지난호 특집 보론

인간과학의 고고학과 계보학 (2)_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과 『감시와 처벌』을 중심으로 | 심세광

이번 호 필자

김기봉 | 역사학자. 1959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포스트모던 역사 서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일을 위한 역사학 강의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역사들이 속삭인다』 등, 여러 저서·공저서를 펴냈다. 현재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복희 | 시인. 1986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펴냈다.

김소형 | 시인.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10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스투프』을 펴냈다.

노대원 | 문학평론가. 1983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국어국문학·신문방송학 전공)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치완 | 철학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부르고뉴대학교에서 베르그송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데아로부터 시뮬라크르까지』 『호모 글로칼리우스』 등의 저서와 『공간의 시학과 무욕의 상상력』 『상상력과 콘텐츠』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여러 공저서를 펴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가흠 | 소설가. 1974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힌트는 도련님』 『사십사』와 장편소설 『나프탈렌』을 펴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도훈 | 문학평론가. 1973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눈먼 자의 초상』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등 4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태현 | 철학자.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 상상력 이론 연구학과에서 질베르 뒤랑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판타지』 『이미지와 상징』 『볼테르와 중국』 등을 펴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세광 | 철학자.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파리10대학에서 미셸 푸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저서와 『정신의학의 권력』 『주체의 해석학』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안연구공동체 등에 출강하고 있다.

양선형 | 소설가. 1990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감상 소설』을 펴냈다.

양순모 | 문학평론가.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정과리 | 문학평론가. 1958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문학, 존재의 변증법』부터 『퇴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에 이르는 12권의 평론집과 『근대소설의 기원에 관한 한 연구』라는 프랑스 문학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홍수 | 문학평론가.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소설의 고독』, 『흔들리는 사이 언뜻 보이는 푸른빛』과 산문집 『마음을 건다』를 펴냈다. 현재 '도서출판 강'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조효원 | 문학평론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뉴욕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부서진 이름(들)』 『다음 책』, 번역서 『유아기와 역사』 『빌라도와 예수』, 『바울의 정치신학』, 『에코칼리아스』 등을 펴냈다. 현재 계간 『문학과사회』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허희정 | 소설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대에 재학 중이다. 201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황인찬 | 시인. 1988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201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구관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를 펴냈다.

황현진 | 소설가. 1979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2011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장편소설 『죽을 만큼 아픈 아이』 『두 번 사는 사람들』 『호재』, 중편소설 『달의 의지』 『부산 이후부터』를 펴냈다